“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품으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 4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4일(일) 실행위원회 정기회의
- 21일(일) 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23일(화) 제 200회 정기노회, 한국 100주년 기념관
- 28일(일) 임시총회 및 창립기념주일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종훈 · 장미라 집사 가정 (결혼기념)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채영학 · 박경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14 호
2024년 4월 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들꽃이 입은 옷

봄꽃들과 함께 쑥과 냉이가 지천인 요즘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니 된다는 친정어머니의 특명을 받고, 급하게 파견된 언니와 함께 공동체 곳곳에 있는 쑥을 뜯으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이토록 힘들 줄이야~~ 냉이인지 안 냉이인지 구분도 못하는 두 문외한이 공동체에 풀이 난 곳을 온통 헤집고 다녔습니다.
쑥은 지천에 있는지라 어디를 가나 캘 수 있으면서도 한 번 앉으면 일어서기가 힘들어 한 곳에서만 캐고 또 캐어 휑하니 대머리 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니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뜯은 쑥이 어느새 한 바구니가 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다시 길에 주저앉아 쑥을 뜯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 하다가도 눈은 땅에 고정되어 걸으면서도 계속 냉이를 찾습니다. 돌나물이며, 민들레며 아주 이제는 전문 나물 채집 꾼들이 되어 공동체 마당 풀들을 초토화시킬 판입니다.
그런데, 쑥을 뜯으면서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토록 먹을 것을 지천에 깔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세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며 전혀 반응 없이 묵묵히 나물을 캐는 언니에게 듣던지 말던지 말하고 또 말합니다.
노란 민들레며 하얀 냉이 꽃, 이름 모를 작은 풀꽃, 하늘거리는 병아리색 꽃등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풀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 (마6:28-30)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이제 막 노래까지 부릅니다. 이번에도 듣던지 말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던 마태복은 5장-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에 관한 말씀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에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욱 귀한 너희가 아니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이랴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든든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헐벗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쑥을 만지면서 어쩌면 이렇게 보드라울까? 냉이를 코에 대면 어떻게 요리 작은데도 이토록 짙은 향을 가지고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이니까 그렇겠지요.
작은 풀도 이토록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인들 어떠하시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는 다 버리고 오직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들꽃 같은 우리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싸여 나타날 것입니다. "

<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67 39
기도 : 이현숙 집사
성경. : 이사야 4장
제목 : 남은 자들을 향한 약속

1. 내용: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다. (What)
<문단구분>
1절 <예루살렘의 비참한 처지>
2~6절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2. 의미: 옛적처럼 회복시키겠다. (Why)
1)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2) 광야에서처럼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3. 적용: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How)
1) 기도와 예배의 모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자.
2) 하나님의 피난처인 교회에 안전하게 머물자

난 지금이 좋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가끔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멍하니 있을 때가 좋다. 엄마가 편물점에 데리고 가 몸 치수를 재어 빨간 코트를 맞추어 주신 생각이 난다. 동생과 알록달록 물들인 계란을 받으러 부활절날 교회에 갔던 생각도 난다. 식구들은 다 자는데 나만 혼자 밤늦도록 텔레비전에서 명화극장을 보며 눈물 흘리던 때도 있었다.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 수련회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포크댄스도 추고 찬송을 목청껏 부르기도 했었다. '문학의 밤'을 한다고 연극연습을 하거나 시 낭송 연습을 하기도 했었다. 이 시절이 좋았다.

대학부 시절에는 주일학교 반사(교사)를 하며 매주 아이들과 놀아주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간식도 준비해 주기도 했었다. 결혼 초에는 방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호박죽을 해서 대접하고 칭찬을 들으며 흐뭇해했었다. 두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가면 예쁘다고 다들 반겨주시니 참 기쁘고 좋았다.

딸들이 고등학생 시절에는 무척 바빴다. 입시 미술을 준비하는 딸들 뒷바라지한다고 몇 년 동안 새벽에 도시락 싸고 살림하고, 나도 직장에 가고… 그래도 지나고 나니 좋다. 요즘은 손주 넷에, 곧 태어날 손주까지 보살피며 무척 즐겁게 지내고 있다. 좋다.

5년 전에 은퇴하여, '배우자! 하자! 가지자! 만나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드럼을 배우고 농사일을 배우고 있다. QT를 하고 성경통독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 또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있다.

오늘은 날이 따뜻해져 상추씨를 뿌렸다.

난 지금이 무척 좋다. 참 감사하다.

따뜻한사랑방 이윤순 집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누가복음 3 : 4b-6	인도자
*예배의 찬송	20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민수기 14 : 19-20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410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골로새서 3 : 1-4	설교자
성가대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따뜻한사랑방
설 교	“ 부활 신앙을 나타냅시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56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38(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양기모 이명호 / 봉헌위원 : 이윤순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여 신령한 유익을 누리고
부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나타냅시다

골로새에 전한 말씀. 골로새는 이방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흔듭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에바브라는 로마에 구금된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믿음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주변 교회에 함께 돌려보도록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평화. 흔들리는 이들에게 먼저 ‘위의 것’을 추구하라 권면하였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토록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속한 이가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평화’ 즉 히브리어로 ‘샬롬(שלו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 너희에게 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의 증인.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된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튼튼하게 고정되듯이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 됩니다. 그리스도와 단단히 연합한 사람은 부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평화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임상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올해도 꽃전을 만들었습니다.

산에 가서 분홍색 고운 진달래를 따고 그루터기 마당에서 샛노란 개나리와 보라색 제비꽃, 초록색 쑥을 뜯어서 깨끗이 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불려둔 찹쌀을 빻으러 이곡리에 있는 방앗간에 함께 갔습니다. 인심 좋은 방앗간 아저씨께서 꾸러기들을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곱게 빻은 찹쌀을 다음 날 오전에 익반죽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앞치마를 두르고 드디어 꽃전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김영화 권사님과 한민아 청년이 함께 해주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예쁜 꽃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죽을 떼어내 동그랗게 빚고 꽃을 얌전히 올리며 큰 접시 한 가득씩 채웠습니다. 그리고 구운 꽃전을 꾸러기들이 공동체 여기저기 다니며 맛보시라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즐겁게 나누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봄을 담은 꽃전 덕분에, 꽃보다 예쁜 꾸러기들 덕분에 모두의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꾸러기 밭을 가꾸었습니다. 재작년에 심은 딸기 네 포기가 번식을 많이 해서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 공동체마당 여기저기에 솎아낸 딸기 모종을 옮겨 심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딸기를 발견하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딸기 외에 무엇을 더 심고 가꿀지 꾸러기들과 의논을 해서 올해는 옥수수와 가지, 방울토마토를 심고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농부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입학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새로 입학한 친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참 예쁘고 대견합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린 친구도 있고, 덥다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다닌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점퍼를 벗지 못하는 교사도 있었는데 날씨가 아리송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5학년이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말씀 동작을 참신하게(?) 준비해서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익혔습니다. 말씀대로 낮에도 밤에도 빛을 밝혀주시는 만군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자치회는 도서 출납을 관리하는 도서부, 학교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는 미화부, 노후 되거나 고장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부, 운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용품을 정리하는 체육부의 부서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부서장들의 수고로움에 더욱 활기차고 질서 있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4월엔 성교육(15일), 안전교육(18일), 건강검진(30일)등 외부 활동이 많지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만물이 생동감있게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 주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월요일에 개교기념일로 쉬었던 멋쟁이들도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멋쟁이들에겐 축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나 기쁜 일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의 반작용인지,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도 늘어서 걱정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뛰는 멋쟁이들의 체력과 열정이 대단하고 또 웃음을 자아냅니다.

미국으로 떠난 4학년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또 멋쟁이들은 나름대로 그 공간들을 잘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학년, 5학년, 6학년은 토요일(6일)에 검정고시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치르는 큰 시험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여러가지를 체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도보여행이 한층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에는 조별로 모여서 텐트도 쳐보는 등, 도보여행에 쓰일 물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목요일에는 실제로 걸어보는 예행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날인 수요일은 멋쟁이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보내지만, 회장단은 도보여행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멋쟁이들이 거쳐가고 있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려요~

< 교사 : 이어진 >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올해는 저에게 생활공동체로 지낸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훅 지나갔지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교회 어른들이 제가 올해 35살이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저는 10년째 같이 지낸 분들이 항상 어른들이셔서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예뻐해 주셔서 아직도 어린애 마냥 천진난만하게 삽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지낸 10년이란 시간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변한 것 중 가장 좋은 것과 힘든 것을 고르라면 둘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살면 안정적으로 지내서 좋지만 다른 면에서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동체에서 지내서 즐거웠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참 당연하게 여겨지고 다른 것들을 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의지하기 보다는 아무 생각 안하고 쉴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쉬는데, 지치기만 하며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로 벌을 받는 성경 말씀만 나오면 내 말씀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어져서 오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침기도에 나가며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즐겁게 같이 살아갑시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478장 325장
성 경 : 디모데후서 2장 14~26절
말 씀 : 그리스도인이 가져야할 태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의 평화를 위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폭격당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는 중동 확전 전쟁으로 더 커지게 될 우려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과 이 전쟁을 멈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번 일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개척자들을 위해>
1) 양평의 샘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도록
2) 평화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동기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치료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2) 미국 출타 중에 있는 멋쟁이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3) 검정고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봄꽃이 만발한 공동체입니다. 따듯한 날씨에 봄꽃들이 피어난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집니다.

밭에 감자도 심고 완두콩도 심으면서 본격적인 한 해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밭에 돌도 고르고 흙을 갈아엎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화단에는 예쁜 꽃도 심고 나사렛 목공소에서는 벤치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